

## 광주 대형 공공건축물 끊이지 않는 '잡음'

신축 체육관·수영장 비 내고 비엔날레 전시관 심사위원 구성 뒷말 DJ센터 2전시장 준폐 기로·사직공원 상설공연장은 행정심판까지

광주시의 대형 공공건축물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가 최근 공공건축물 기획부터 설계·공사 등에 대한 부서 간 협업 강화 등을 담은 대책까지 내놨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 도심 곳곳에 완공된 대형 공공건축물이 부실시공 등으로 감사를 받고 있으며, 새롭게 조성하는 공공건축물들도 설계 공모 과정부터 심사위원 구성 문제로 논란을 빚는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건축물은 시·자치구 등 공공기관이 예산을 들여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건축물로, 시민의 삶과 밀접한 시설이다.

1182억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새롭게 조성하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은 국제 설계 공모 심사위원 구성 과정부터 지역 인사 참여 여부를 놓고 각종 뒷말이 나오고 있다. 지역 미술인들은 '국제설계 공모 자체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재공모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설계공모 결과에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광주시가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하면서 공모 20일 만에 참가 신청을 마무리하고 45일 만에 공모안을 접수한 이후, 10일 만에 당선자를 발표하는 등 조급히 진행했다"면서 "새 전시관은 광주를 상징하는 건물이 되어야 하는데, 설계 당선작은 특색이 부족하고 비엔날레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참신성과 실험성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광주시가 민선 8기 들어 야심 차게 내놓은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준폐의 기로에 서 있다. 공사비 상승으로 계획보다 2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내부적으로 자재·인건비, 공사비가 급증한 만큼 개편을 늦추더라도 추가 예산을 마련해 기존 설계대로 짓자는 입장과 사업 무산 등을 우려해 현 예산 여건에 맞춰 계획 기간 내에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맞서고 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은 앞서 설계 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구성 관련 등 각종 마찰이 일면서, 수도권 소재 국내 대형 설계업체들이 공모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90억원을 들여 사직공원에 조성하는 상설 공연장 역시 설계 당선작에 대한 행정심판 요청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행정심판이 각하되는 등 사업은 다시 진행됐으나, 좁고 가파른 길 탓에 공공시설의 무인 BF(배리어 프리) 인증을 받지 못하면서 당초 지난해 7월에서 올 4월로 연기됐던 공사는 아직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완공된 공공건축물도 부실시공으로 감사를 받는 등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새 건물인 평동·무등·빛그린 체육관과 수영장 건물에서 비만 오면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3월 감사에 착수했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160억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개장한 '새 건물'인데도, 비만 오면 건물 곳곳에서 물이 새고 있다.

이처럼 공공건축물 관련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광주시의회에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수정(민주·북구3) 광주시의원도 최근 시장질문을 통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 광주시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와 관련한 공정성 문제, 행정 심판, 위원 선정 방법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신 의원은 "광주시가 조성하는 공공건축물들이 설계 공모에 대한 공정성 논란과 소송 등으로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는 만큼 설계 공모에 대한 인식 전환과 개선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최근 공공건축물 기획부터 설계·공사, 유지·관리까지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내부 대책으로만 편중돼 있는 점 등이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공공건축물은 절대다수의 시민을 위해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 건물로 인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지, 일조권을 막는지, 점수가 되는지, 스카이라인에 문제가 있는지 등 광주 전체의 틀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또 광주시가 부서 간 협업 등 공공건축물 대책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 그동안의 문제를 인식한 것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면서도 "다만 내부 대책 개선에만 너무 매몰돼 있으며, 새로운 공공건축물과 관련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입지 부지부터 건물의 설계, 유지·관리 등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거치는 등 외부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시의 대형 공공건축물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18일 좁고 가파른 길 탓에 공공시설 의무 기준인 BF(배리어 프리) 인증을 받지 못해 착공조차 못한 광주시 남구 사직공원 상설 공연장 부지가 텅 비어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교수 50명 진료 중단

동네병원들도 진료 중단 동참

광주·전남 의사 220명 상경 집회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전면휴진과 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린 18일 광주·전남 의료계 일부가 멈췄다. <관련기사 6면>  
광주·전남 상급병원 2곳에서는 30% 안팎의 외래진료가 중단됐고, 광주·전남지역 동네병원 곳곳이 문을 닫았지만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병원을 찾은 지역 환자들은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며, 의정갈등의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8일 전남대·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오전 진료 교수 중 30% 안팎의 교수가 휴진에 동참했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이날 진료가 예정돼 있던 교수 87명 중 29.8%(26명)가 외래진료를 하지 않았다. 조선대병원에서도 이날 외래 진료가 교수 62명 가운데 37.5%(24명)가 오전 진료를 중단했다.

오전에 휴진한 의사들은 오후까지 진료중단을 계속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과는 평소와 같이 운영됐다. 병원들은 예약 환자들에게 전날까지 미리 문자 등을 통해 일정 조정을 알

려 휴진으로 인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환자들은 외래진료에 따른 진료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전남대·조선대병원 모두 19일에는 기존처럼 정상진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급병원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지역 동네병원들도 진료중단에 동참해 동네병원을 찾은 지역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휴진에 동참한 광주·전남지역 의사 220여명은 이른 오전 전세버스를 동원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의사총궐기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광주지역 의사 150여명은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무등산신양파크호텔 컨벤션홀에서 여의도 현장을 중계하는 유튜브 영상과 함께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여의도 집회에 참석한 광주·전남 의료계는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의사협회와 역대 정부

와의 마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기간 의료계가 많은 양보를 통해 국민 생명 지킴에 이바지했다"며 "정부는 의사들을 악마화해 국민들과 이간질 시키고, 모든 문제를 의학의 책임으로 떠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에 남아 연대의 목소리를 낸 광주·전남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 낭만 사태가 100여 일이 지나면서 학생들과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의학은 지난해 11월부터 정부와 협상에 인해왔고,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했다"면서 "비정상적인 의료보험 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문제지만 이러한 점을 개선하지 않고, 정부는 무조건 의대정원만 증원하려 하고 있다. 전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K-의료를 10년 후퇴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사업 추진 속도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가 붙게 됐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단지 조성안'을 국가정책사업으로 결정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국가 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게 전남도 분석이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지난해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뒤 1년 여 만에 예비타당

성조사 면제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53만㎡(약 46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11개 엔지니어링 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이다.

우주발사체 국가산단뿐 아니라 지난해 민간발사장 핵심인프라 조성사업,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건립 사업 등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데 따라 향후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진화, 그 이상의 새로움

The new E-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4-5001 & 광주 인증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방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 220 d 4M EX · 배기량:1993, 공차중량:1975, 자동9단, 복합연비:15.4(도심연비:13.6, 고속도로연비:18.4), 등급:2, 복합CO2 배출량:122  
· E 300 4M EX · 배기량:1999, 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4(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300 4M AMG line · 배기량:1999, 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4(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450 4M EX · 배기량:2999, 공차중량:1970, 자동9단, 복합연비:10.5(도심연비:8.9, 고속도로연비:13.4), 등급:4, 복합CO2 배출량:1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